

광주역, 창의지식산업 출발지로 만든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시행후 복합개발 광주시, 계획서 작성 을 상반기 국토부에 제출

광주시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광주역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창의지식산업 출발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외문화예술벨트를 연결하는 '문화와 신경제 중심지', 역세권 주변 재개발과 연계한 '콤팩트타운' 등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계획서를 작성해 올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는 22일 "계획서의 보완을 위해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LH토지주택연구원, 광주시,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용역업체

인(주)도시문화집단 CS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국가 도시재생 뉴딜정책 의의 및 방향', LH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 연구위원이 '도시재생뉴딜을 위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현황과 과제', (주)도시문화집단 CS 정성구 대표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현안과 추진계획'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조진상 동산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유우상 전남대 건축학부 교

수, 안평환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 강권 광주시 도시재생정책과장 등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성구 대표는 광주역의 역전을 '콤팩트 코어(Compact Core) 4.0'으로 혁신하기 위해 1단계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면적 50만㎡)을 시행한 후 2단계로 복합개발(약 20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역 지하로 남북 도로를 개설하고 이어 스타트 큐브, 4차산업혁명 비즈니스센터, 빅데이터 허브센터, 스마트기술 체험존, 도시재생컨트론타워, 푸른길공원 연장 및 스마트 모빌리티거리 등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옛 국군통합병원은 힐링과 치유, '역사 문화 부도심 505'로, 일선방직 광주공장은

광주의 즐거운 중심, '스마트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이라고 강조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 연구위원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고용기반 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 파급 효과를 주변에 전파하는 것으로 거점 토지의 초기 확보, 공공 주체들의 역할과 의지를 담은 사업실행 계획, 거점 사업 시행 민간 주체, 거점사업의 확산 방안, 장기 관리 운영 계획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푸른길 공원에서 떡국 나눔 봉사 광주 동구적십자봉사협의회 회원들이 22일 동명동 푸른길 공원에서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출연기관 예산 부담 집행 등 적발

6개기관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 행정행위 19건

전남도 출연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행정 사례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22일 중소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재단, 서울사무소,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등 6개 기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소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조직, 예산 편성, 집행 적정성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받아 부적정 행정 행위 19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2명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으며 252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마을기업 제품 포장 및 개발지원 용역을 추진하면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 관련자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계약을 해 주의의를 받았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축·조의를금 기 준금액을 초과해 보내는가 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설과 추석 선물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디지털 영상기 구매 과정에서도 설계변경 없이 초과해 썼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낭장망' 감척사업비 60억 확보

연근해어업지원법 개정 순항

전남지역 영세어업인의 숙원사업인 낭장망(정치성 구획어업) 어업의 감척사업비 60억원이 확보됐다.

전남도의회 윤문철 의원(여수·민주평화당)은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낭장망의 감척요구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 1559톤 중 전남도 낭장망이 87.7%, 1351톤이 여수 돌산과 황간도, 화대도, 고흥 지역 등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전남의 수산업을 살리고 영세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산물 생산여건 조성과 어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 대체어장, 출어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어선감척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문철 의원은 "바다가 살아야 전남의 미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곳곳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대구 시민 대상 '달빛투어'

다음달부터 진행

광주시가 오는 3월부터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2018 광주-대구 달빛투어'를 진행한다. '광주-대구 달빛투어'는 광주-대구간 달빛동행을 민간 차원의 관광교류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 시작했다.

시는 대구 여행사가 광주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모객해 광주를 방문하면 차원의 관광교류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 시작했다.

시는 대구 여행사가 광주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모객해 광주를 방문하면 차원의 관광교류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 시작했다.

으로 진행된다. 지원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대구지역 여행사는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광주여행 상품 기획해 20명 이상을 모객하고, 시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여행사 역시 동일한 절차로 대구 투어를 진행하면 지원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김용승 시 관광진흥과장은 "대구시민들이 광주 곳곳을 탐방하고 남도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만나며 광주 시민들의 온정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대구 간 연대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차원 교류로 확대돼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달빛투어 관련 문의는 광주여행사의 경우 대구시관광협회(053-746-6407), 대구여행사는 광주시 관광진흥과(062-613-3625)로 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는 이처럼 달빛투어를 통해 약 7000여 명의 광주시민과 대구시민이 광주와 대구를 교차로 방문하며, 주요 관광명소와 향토음식을 즐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역시 달빛투어는 동일한 방식

광주여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공모 선정

국비·시비 등 10억 지원

광주 대학일자리센터 5곳

광주시는 22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18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운영대학 공모사업'에 광주여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광주여대는 국비 5억원을 확보하고, 시비와 대학부담금 포함한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청년 취업·창업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대학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 대학 부담금을 포함해 5년동안 1개 대학 당 대학사업은 연간 6억원씩 30억원, 소형사업은 연간 2억원씩 10억원의 사업비로 운영된다.

현재 대형사업으로는 전남대, 조선대, 학공모사업'에 광주여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광주여대는 국비 5억원을 확보하고, 시비와 대학부담금 포함한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청년 취업·창업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는 2015년 개소한 전남대, 2017년 개소한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에 이어 총 5개의 대학일자리센터가 운영돼 지역 대학생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대학생 중심의 청년 일자리 정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정된 광주여대는 소형사업으로 추진된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진로 지도 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인프라 구축, 해외취업 지원, 청년고용정책 홍보, 창업지원 및 졸업생 사후관리 DB 구축 등이다. 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서비스를 공동으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평창올림픽 응원 광주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유광중)가 22일 평창동계올림픽경기 응원단 40여명을 파견해 강릉아이스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전을 펼쳤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증-83294호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수술!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마음으로 다가가는
첨단우리병원